# 목포 매년 교통사고 1500건…대책 마련 시급

## 3년간 4431건·사망 67명…노인·어린이 보행사고 잦아

### 죽교동·무안동 교차로 등 사고 다발지역 안전진단 필요

해마다 목포시에서 교통사고로 20여명이 숨졌으며, 이 중 71%는 보행자 사망사고로 집계돼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 중 노인이 64%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으며, 어린이 교통사고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시설물 보완 및 교육 등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발표한 목포시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목포시에서 최근 3년(2013년~2015년) 동안 443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67명이 사망하고 7388명이 부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피해비용만 총 265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사망자 피해 비용이 242억원, 부상자는 1211억원, 물적 피해는 1199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보행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이 9명, 음주운전 사고 4명, 이륜차 사고 3명, 화물차 사고 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보행 중 사고로 48명이나 숨져 전체 사망자의 71.6%를 차지했다. 더욱이 보행 중 숨진 48명 가운데 노인이 31명으로 64.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도 293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87명이 부상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7.3%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582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에서 보행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대성동 죽교동 교차로로 발생건수 6건에 사상자 12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무안동 무안동교차로에서는 5건이 발생에 사망 1명 등 사상자 10명이 발생했고, 산정동 성암빌딩 부근은 4건에 사망 1명 포함 8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밖에 영해동 우편취급국 부근, 동명동 어판장 교차로, 산정동 목포오일총판, 상동 버스터미널 부근(3건 발생 2명 사망), 용당동 동부시장 부근, 산정동 신안비치 팔레스 1차 앞 등이 사고 다발지역 10위권 내에 들었다.

최근 3년 동안 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산정동 신안비치 팔레스 1차 앞 도로.

또 3년 동안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살인도로는 산정동 신안비치 팔레스 1차 앞(5명), 산정동 목포여고~목포수협 사거리 구간(5명), 상동 광장주유소 사거리(4명) 등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행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상동 장미의 거리로, 4건이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지부 김인홍 안전시설부장은 "노인 교통사고는 느린 걸음 등의 영향으로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횡단보도 시간 조절, 8차로 이상 보행섬 설치, 차도와 보도 경계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선 이론적인 교통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교통안전교육에 나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거나 중상 사고 이상의 교통사고가 10건 이상인 곳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목포항 자동차 수출 중심항 육성 탄력

### 항만기본계획 수정안 확정 고시

목포항이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자동차 수출 중심항으로 육성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년)이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122호로 확정·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항만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항만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전국 59개 항만에 대한 중장기 육성방향과 항만별 개발계획을 담고 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지난 2011년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수정계획을 수립·확정하기 위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후 확정했다.

이번에 고시된 목포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는 목포항 재해방지 시설, 북항 해경부두 부잔교 설치, 북항 활어선 접안시설 건설, 신항 직선화 진입도로(1.5㎞) 건설(장래사업), 목포해양대학교 소형실습선 계류시설 설치 등이 반영됐다.

또 수정계획에는 목포신항 신규 자동차부두 1선석(3만톤급) 추가 설치가 반영됐고, 신항 배후단지 조성공사(48만㎡)도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어서 목포항이 자동차 수출 허브항으로 거듭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즐겁고 알차게" 수업선도교사 2기 공개수업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선미)은 지난 5일 목포연산초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8개의 학교에서 유, 초등 교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업선도교사 2기 수업 공개를 실시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개관 10주년 특별전

### 내년 1월8일까지 2차례 개최

목포생활도자박물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도예, 확장과 공존'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

기획전은 1차로 지난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2차로 11월 26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등 2차례로 나눠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전에는 전통적 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예술 감각이 표현된 도예 작품들을 전시된다.

1차 전시에는 현대 도예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젊은 작가 6인(금정희, 김일완, 맹욱재, 이수복, 이춘복, 정유근)의 작품을, 2차 전시에는 원로 작가 4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목포생활도자박물관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다양한 작품들을 살펴보면서 도예의 새로움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시, 달성사·문태고 구 본관 등 문화재 8곳 보수·정비

목포시가 국가 및 전남도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9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한해 8억4000만원(국비 3억8000만원, 도비 1억9700, 시비 2억6300만원)을 투입해 국가 등록문화재 5개소와 도 지정 문화재 3개소 등 8곳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는 실시설계가 끝난 ▲달성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 주변정비 ▲문태고 구 본관 원형복원과 주변 배수로 정비 ▲목포 구 청년회관 창호·도장 공사 등 3개소에 대해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달성사는 국가지정 전통사찰로 경내에 유형문화재 228호인 목조 아미타삼존불상과 임진왜란 이전에 조성된 국내 유일의 목조 지장보살반가상(229호)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시는 또 1억5000만원을 투입해 문태고 구 본관에 대한 원형 복원과 함께 주변 배수로 정비에 나선다.

문태고 구 본관 건물은 중앙부와 양단부를 뒤로 돌출시킨 E자형 평면을 가진 건물로, 전면에 삼각형의 박공판을 두어 정면성을 강조하는 등 근대건축물로써 가치가 높아 지난 2014년 등록문화재 640호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1924년 건립돼 일제강점기 목포 청년 운동의 산실로 자리매김돼온 목포 구 청년회관에 대한 창호·도장 공사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목포시는 담장이 없어 재해 위험이 있는 달성사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기와 담장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

목포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수·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산재된 문화재 시설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에는 구 목포일본 영사관 등 국가지정문화재 4개소(사적1, 천연기념물2, 무형1)와 만호진 등 도지정문화재 13개소(유형3, 무형4, 기념물3, 문화재자료3) 등 17개소의 문화재와 등록문화재 10개소 모두 27개소에 달하는 향토문화유산이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osu@

# "청렴 의회 만들자"…윤리특위 조례안 개정

### 목포시의회 임시회

목포시의회가 제329회 임시회에서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김영란 법 발효에 따라 '목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보안·정비하고, 구성인원을 명확히 규정해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 발생 시 신속한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을 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위원장 포함 8인으로 구성하고, 위원구성은 운영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각 부위원장과 기획복지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한 1인으로 구성된다.

조성오 목포시의회의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은 청탁과 대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목포시의회 역시 청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결정"이라며 "목포시가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나가는 선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